

# 感冒에 관한 文獻的 考察

— 慶熙大學校 韓醫科大學 內科學教室 —

柳尙青 · 鄭昇紀 · 李珩九

— 尙志大學校 韓醫科大學 —

李俊茂

## I. 緒 論

傷風 或은 四時傷寒으로도 일컫어지는 感冒는 上呼吸道感 染病의 一種으로 現代醫學에서는 流行性感氣라고도 한다. 感冒의 原因으로는 外部의 邪氣의 侵入 或은 급격한 氣候變化에 依한 體溫調節의 失調 또는 平衰體虛하여 저항력이 약한 것의 경우로 크게 大別할 수 있다.

其症狀은 發熱, 頭痛, 四肢倦怠, 肢節疼痛, 惡寒, 節內痛 等の 全身症狀과 咳嗽, 咯痰, 鼻基聲重등의 呼吸器 症狀을 나타내게 되는데 이는 모든 傳染性疾患 或은 發炎性 疾患의 始初에도 나타날 수 있는 것들이므로 治療에는 반드시 監割診斷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에 感冒에 관한 文獻的 考察을 통하여 보다 精確한 理解를 얻고자 本研究를 試圖하였다.

## II. 本 論

### 1. 黃帝內經<sup>6)</sup>

黃帝問日余聞風者百病之始也. 以針治之奈何. 岐伯對日風從外入令人振寒汗出. 頭痛身重, 惡寒治在風府調其陰陽不足則補有餘則瀉 〈骨空論〉

陽受風氣 陰受濕氣 故傷於風者上先受之傷於者下先受之 〈太陰陽明論篇〉

正邪者身形若用力汗出腠理開逢虛風其中人也微故莫知其情莫知其形 〈八正神明論〉

風氣藏於皮膚之間內不得通外不得泄, 風者善行而數變腠理開則酒然寒, 閉則熱而悶, 其寒也則衰飲食, 其熱也則消肌肉故使人慄慄而

不能食名曰寒熱

〈風論篇〉

### 2. 太平惠民和劑局方<sup>21)</sup>

大抵感冒古人不敢輕發汗者止由麻黃能開湊理用或不能得宜則導泄真氣因而致虛變生他證此樂阜平和之劑人參養胃湯也止能溫中解表而已不致妄擾也.

### 3. 醫學正傳<sup>12)</sup>

· 外有四時感冒新受風寒之輕證, 亦有頭痛體痛, 惡寒發熱等候, 自當作感冒處治, 非冬傷寒邪過時而發之重病此也. 今人因借仲景治傷寒法治之荻効, 遂通謂之四時傷寒實非仲景立法之本意也.

#### · 脉法

脉陽浮而陰弱, 謂之傷風, 邪在六經, 俱弦加之陽浮衛中風也, 陰弱榮氣弱也.

#### · 方法

有感冒輕病不可便認爲傷寒

桂枝湯 治太陽經傷風, 發熱自汗, 鼻鳴干嘔

麻黃湯 治太陽證, 脉浮, 頭及身體疼痛, 惡寒發熱無汗而喘.

藹香正氣散 治四時感冒, 頭痛憎寒壯熱或風濕氣霍亂吐浮.

不換金正氣散 治四時感冒傷寒, 瘟疫時行, 及山嵐瘴氣寒熱往來, 霍亂吐浮, 下制赤白, 及出遠方不伏水土, 并皆治之

十神湯 治時今不正瘟疫妄行, 或四時感冒風熱, 發熱憎寒, 頭疼身痛無汗, 此藥不問陰陽兩感并宜服之.

消風百解散 治四時感冒 發熱頭疼咳

嗽鼻寒聲重喘急等證。

#### 4. 丹溪心法附餘<sup>20)</sup>

傷風屬肺者多。宜辛溫或辛涼之劑散之。

載元新咳嗽鼻寒聲重者是也。

參蘇飲 治感冒風邪。發熱頭疼。咳嗽聲重。涕唾稠粘此藥大解肌熱。寬中快膈。或欲成廢湖熱往來並能治之。

定風餅子 治風容陽經。邪傷腠理。背脊強直。言語蹇澁。體熱惡寒。疾厥頭痛。肉瞶筋惕手顫鼻淵及飲食過多。嘔吐涎沫頭目暈眩。常服消風去邪。

冲和散 治感冒。風濕之氣頭目不清鼻基聲重。肢體倦怠。欠伸出淚。

川芎茶調散 治諸風上攻頭目昏重偏正頭疼鼻基聲重。

人參敗毒散 治傷寒頭痛壯熱惡寒及風疾咳嗽鼻基聲重。如心經瀰熱。口舌乾燥者加黃芩。

葱白散 治四時傷寒。頭痛。壯熱。肢體煩疼。小便赤澁。及傷風。鼻塞。(咳·痰延 山崗瘴氣並皆治之)

羌活散 治風氣不調頭目眩暈。疾涎壅滯。遍身拘急及風邪壅塞。頭痛。項強。鼻塞聖重。肢節煩疼天陰風雨預覺不安。

生料五積散 治感冒寒邪。頭疼身痛。項強拘急惡寒嘔吐。有腹痛。又治傷寒發熱頭疼惡風無關內傷生冷外感風寒。及寒濕容於經絡。腰脚疾疼。及婦人經滯腹痛並皆治之。

凡證與傷寒相類者極多皆來證也。

切有感冒等輕證不可便認作傷寒妄治。

香蘇散 治四時傷寒頭疼發熱惡寒。

和解散 治四時傷寒頭痛煩躁自汗。咳嗽吐利。喘滿痞悶。

八解散 治四時傷寒頭疼體熱惡風多汗。嘔吐惡心喘滿痞悶。

#### 5. 醫宗必讀<sup>15)</sup>

經日虛邪賤風陽先受之又日內膜閉拒。雖有大風苛毒弗之能容。愚按風爲陽邪善行數變。其傷人也。必從俞入俞皆在背。故背常固密。風弗能干。已受風者常曝其背。使人透熱則潛消默散。經文所謂乘虛來犯固矣。若其人素有痰熱壅遏於太陰陽明之經。內有樂喪。則風邪易於外束。若爲之招引者然。所謂風乘火勢。火借風威。互相鼓煽也。治實之法秋冬與之辛溫。春夏與之辛涼。解其肌表。從汗而散。治虛之法固其衛氣。兼解風邪。若專與發散或汗多亡陽或屢痊屢發。皆治之過也。治風火之法辛涼外發。甘苦內和。勿與苦寒恐正不得申。邪不得解耳。

神朮散 治傷風頭痛鼻塞聲重。

#### 6. 醫學入門<sup>16)</sup>

· 冒風惡風多屬肺

主) 肺主皮毛通勝眈最易感冒新咳嗽惡風鼻基聲重噴嚏是也。

· 重則傳變輕不傳

主) 風重傳喪一同傷寒治法。

· 久甚能爲氣血害。

· 感冒尋常和表喪

主) 西北若寒中傷者多東南溫和中傷者少。尋常感冒表證見者九味羌活湯芎芷香蘇散。寒入腸胃者霍亂車專筋洞泄下利乾嘔吐逆藿香正氣散。或五積散挾食停痰者人參養胃湯夏秋暴寒折熱於喪者調中湯微下之。

#### 7. 東醫寶鑑<sup>5)</sup>

· 寒溫不節將理失宜乍煖脫衣甚熱飲冷坐臥當風居處暴露衝冒霜雪凌晨朝起呼吸冷氣久晴暴煖忍變陰寒久雨積寒致生陰濕如此之候皆爲邪厲侵傷肌肉入干腠理使人身體沈重肢節痰

疼項背拘急頭目不清鼻塞聲重漏出氣壅胸膈凝滯飲食不入凡此之證若不便行鮮利伏留經絡傳變無已。

• 尋常感冒有表證宜羌活沖和湯防風沖和湯。芎芷香蘇散寒毒入衰吐利者藿香正氣散挾食停疾人參養胃湯時令感冒宜升麻葛湯。

• 凡感冒風寒通謂之四時傷寒宜沖和散正氣散參蘇飲沃雪湯交加散十味芎蘇散對金飲子。

#### 8. 壽世保元<sup>7)</sup>

發表散 傷寒傷風頭疼發熱口乾鼻流。

人參養胃湯 傷風寒後餘毒未散上功頭頸。鼻塞聲重怒氣上攻。時常有血從胸上落至口中或紅痰出，此陽道不利作便，非血病也。

#### 9. 景岳全書<sup>18)</sup>

傷風之病本由外感但邪甚而深者偏傳經絡即為傷寒邪輕而淺者止犯皮毛則為傷風皮毛為肺之合而上通於鼻故其在外則為鼻塞聲重甚者并連少陽陽明之經而或為頭痛或為憎寒發熱其在內則多為咳嗽甚則邪實在肺而為疾為喘有寒勝而受風者身必無汗而多咳嗽以陰邪閉查皮毛也。有熱勝而受風者身必多汗而惡風而咳嗽以陽邪開泄肌腠也有氣強者雖見疾嗽或五六日或十餘日肺氣疎則頑疾利風邪漸散而愈也。有氣弱者邪不易解而疾嗽日甚或延綿數月風邪猶在非用辛溫必不效也有以衰老受邪而不慎起居則薦邪未去新邪繼之多致終身受其累此治之尤不易也。蓋風邪傷人必在肩後頸根大杼風門肺俞之門由茲達肺最近最捷按而酸處則其逕也故凡氣體薄弱及中年以後血氣漸衰者邪必易犯但知慎讀此處或晝佐臥則常令微煖或夜臥則以衣扁之。類密 其處勿使微涼則可免終身傷風咳嗽之患。

#### 10. 醫宗金鑑<sup>13)</sup>

傷風屬肺咳聲重，鼻塞噴嚏涕流清。鼻淵胸熱不噴嚏，濁涕穢久必鼻紅。

主) 傷風屬肺。故噴嚏也。鼻淵屬胸。故不

噴嚏也。傷風寒邪。故涕清也。鼻淵熱邪故涕濁也。鼻淵病久或有穢氣則熱深故胸衄鼻血也。

#### 11. 類證治裁<sup>17)</sup>

風者天之陽經云虛邪賤風陽先受之風邪傷衛故腠理疏者善病風其症惡風有汗脈浮頭痛鼻塞聲重咳嗽痰多或憎寒發熱。惟其人衛氣有疏密。感冒有淺深。故見症有輕重。治法不宜表散太過不宜神益太早。須察虛實審輕重辨寒熱順時令。

#### 12. 傳青主男女科<sup>8)</sup>

凡人初傷風必然頭痛，身痛，咳嗽鼻流清水，切其脈必浮。

#### 13. 濟衆新編<sup>1)</sup>

尋常感冒不敢輕發汗或不得其宜則惟泄其氣而虛變生他症共平和之劑治之表症芎芷香蘇散寒入衰吐利藿香正氣散挾食停人參養胃湯并麻葛根湯 治溫病及時令感冒。

#### 14. 沈氏尊生書<sup>10)</sup>

感冒源流

感冒。肺病也。元氣虛而腠理疎也。經日虛邪賤風陽先受之。蓋風者天之陽其乘於人則傷衛。衛者陽也。故日陽先受之。衛又即氣也。肺主氣脾生氣故傷風雖肺疾而亦有關於脾以脾虛則肌肉不充。肺虛則元府不閉皆風邪之所由以入也。蓋以風為百病長善行數變無微不入十二經十五絡五臟六腑。皆能受風而為病。或經絡受之由皮毛而入肌肉入腑或由鼻口受之而入胃入腸或入骨空肢節而心火與風易合。肝木與風易引。肺金在至高尤易感又况頭頂招風。眼招風。四肢受風濕。古人云避風如避箭雖風之正者猶虛避之 况其為癘為邪者乎是故風感人於不覺初治則易散。久則漸入於內六淫之邪每因緣以作難風固不可不慎。治風亦不可不審也吾故論之風邪襲人不論何處受必內歸於肺其證或頭痛身熱輕則否鼻必塞兼流清涕必惡風惡寒重或聲啞甚者痰壅氣喘。合口不聞。咳嗽咽乾自汗脈浮而緩此外感也。春夏治以辛涼秋冬治

以辛溫則肌表鮮而邪從汗散矣。或素有疾熱壅過於太陰陽明之間內有窠。風邪易入若爲之招飲者借人所謂風乘火熱火借風威。互相鼓煽者內因也。治必以辛涼外發甘若內和斯正不傷而邪自去矣。又有重衣厚被肺因壅熱生風而在外風邪又適與之相襲。其證亦聲重鼻塞咳嗽咽乾音啞則內外因也。治以甘若辛涼兼并散之品邪自由內達外而鮮矣。至有風熱兼傷者或先感風人受熱或先熱又感風一時交發。貴審其輕重而治之。若久而不愈其人必虛。固不得專用疎散也。然則感冒之證雖若輕微而要宜可忽視者乎。

治感冒方

柴胡升麻湯～春夏，柴胡，前胡，升麻，赤芍，桑皮，黃芩，葛根，荆芥，石膏，茶調散～茶葉，川芎，黃芩，白芷，薄荷，荆芥。

參蘇飲～秋冬，人參，蘇葉，葛根，半夏，前胡，桔梗，枳殼，陳皮，茯苓，甘草，木香。

人參敗毒散～秋冬，人參，羌活，桔梗，柴胡，前胡，獨活，川芎，枳殼，陳皮，茯苓，甘草。

羌活沖和湯～內因，羌活，防風，蒼朮，甘草，白芷，生地，川芎，黃芩，細辛，薑。

桔梗湯～內外因，桔梗，香附子，山梔，黃芩，川芎，知母，前胡。

上清散～風熱，元參，薄荷，荆芥，甘草，大黃，歸尾，桔梗，練皮，黃芩，枳殼，川芎。

加味二陳湯～又，半夏，陳皮，當歸，茯苓，枳實，桔梗，杏仁，砂仁，黃芩，山梔，蘇子，甘草。

#### 15. 萬病醫樂顧問<sup>14)</sup>

傷風證

一. 何謂傷風 感受風邪而成病。是謂傷風病。

#### 二. 傷風證共分二類 ① 風溫 ② 風寒 風寒類

病源) 風寒襲肺 風寒襲肺咳嗽形寒是謂風寒病。

病狀) ① 惡寒咳嗽 風寒病惡風寒時時咳嗽疾白而薄舌苔薄白，口不渴，小便清長，脈浮緩。

② 骨節疼痛 風寒病骨節疼痛，頭眼痛，惡寒嘔逆，汗自出脈浮弱。

變症) ① 痰飲咳嗽 風寒病失治風寒深伏不解。時時凜寒咳嗽久不愈。疾多白沫喉中有水雞聲口不渴，變爲痰飲咳嗽也。

② 陷入陽明 風寒疾失治。邪查不解。入陽明。變爲陽明傷寒也。

#### 16. 徐靈胎醫書全集<sup>19)</sup>

傷風難治論

凡人偶感風寒。頭痛發熱。咳嗽涕出。俗語謂之傷風非傷寒論中所云之傷風。時行之雜感也。人皆忽之。不知此乃至難治之疾。生死之所關也。蓋傷風之疾。由皮毛以入於肺肺爲嬌藏。寒熱皆所不宜。太寒則邪氣凝則不出。太熱則火燔金而動血。太潤則生痰飲。太燥則耗精液。太押則汗出而陽虛。太澁則氣閉而邪結并有視爲微疾。不避風寒。不慎飲食經年累月病機日深。或成血證。或成肺痿。或成哮喘。或成怯弱。比比皆然。誤治之容。不可勝數。諺云傷風不醒。變爲成勞。至言也。然則治之何如一驅風蘇葉荆芥之類二消痰半夏象貝之類三降氣蘇子前胡之類四和榮衛桂枝白芍之類五潤津液棗仁元參之類六養血當歸局膠之類七清火黃芩山支之類。八理肺桑皮大力子之類。八者隨其症之輕重而加減之。更加以避風寒。戒辛辣則庶幾漸愈否則必成大病。醫者又加以并提辛燥之品。如桔梗乾干之類。不効即加以酸收。如五味子之類則必見血及見血隨用熟地麥冬以實其肺成勞而死。

17. 皇漢醫學叢書<sup>22)</sup>

風邪古名中風。意即中於風之病也。感冒。傷風。冒風等 皆其異名也。

定義) 寒冷侵入。爲諸種病狀之重機。其一般所知者爲呼吸器系統之疾患。

原因) 考感冒之成立由於次之三要素即一。周圍之氣溫低下二。傳染 三。身體感受性之銳敏。

症候) 風邪之症候普通始於噴嚏。惡寒。其次發熱。頭痛。鼻塞或伴以咽喉痛。咳嗽。小兒屢現消化器方面之病大多嘔吐下痢或全身之筋肉與關節疼痛。大概多爲輕症狀。惟流行性感冒者往往呈重篤之病態。

備考) 古書稱中風之風。後世醫書稱感冒。後世醫書之中風指偏枯半身不遂之病而言即今俗稱之中風。傷寒論之中風。即係傷寒之輕者。最初惡寒發熱。頭痛。鼻涕人人所知。其理與傷寒同。

18. 中醫臨床手冊<sup>14)</sup>

• 上呼吸道感染包括普通感冒與流行性感  
冒。

• 風寒感冒。

症狀) 怕冷重。發熱輕。無汗。鼻塞。噴嚏流涕。頭痛身痛。或咳嗽。咯痰稀白。

脉象) 浮

舌苔) 薄白

治則) 辛溫解表。疏散風寒。

例方) 荊防敗毒散

• 風熱感冒

證狀) 發熱重。怕冷輕。口乾微渴。咽喉腫痛。或咳嗽。咯黃稠痰。

脉象) 浮數

舌苔) 薄黃

治則) 辛涼解表。祛風清熱

例方) 銀翹散

• 暑濕感冒

證狀) 發熱惡寒。頭悶痛。身倦。四肢困重。胸悶或嘔吐腹瀉

脉象) 濡或濡數

舌苔) 白膩或微黃。

治則) 清暑利濕。芳香化濁。

例方) 藿香正氣散

• 流行性感冒

證狀) 高熱惡寒。甚則寒戰。劇烈頭痛身痛。

脉象) 浮數有力

舌苔) 疏解外邪。清熱解毒

例方) 銀翹散加大青葉。

注) 體虛人感冒; 扶正。益氣。養血。滋陰。助陽。

19. 中醫內科學<sup>9)</sup>

流行性感冒(流感)是一種由流行性感  
冒病毒所引起的急性呼吸道傳染病。臨床特點是起病急。全身症狀(如咳嗽。咯痰等) 一般輕症。

病因病理)

一。外感熱毒。二。氣候變化。 三。體質虛弱  
診斷和監別診斷)

普通感冒的特點是上呼吸道感染症狀(如鼻塞。流涕咳嗽。咯痰等) 輕明顯。而全身中毒症狀一般較輕。

20. 漢方臨床四十年<sup>3)</sup>

傷風의 原因은 內經에 風傷衛(氣)라 하여 外氣의 影響으로 風邪가 皮膚기능에 害를 주어 體溫調節을 못하게 되면 惡寒。惡風。發熱。鼻塞。鼻涕。咽喉痛等症을 나타낸다.

外感으로서의 傷風症은 傷寒榮(血)의 傷寒보다 輕한 것이며 漢方에서 直中風을 內風證이라하고 傷風을 外風證이라 하였다. 이 感冒는 주로 늦은 겨울에서 이른봄의 그 사이에 많이 發生된다.

## 21. 晴崗醫鑑<sup>2)</sup>

感冒는 비록 些少한 病이나 사람에게 따라 또는 原因에 따라 輕, 重이 있으며 대거는 코감기, 몸살감기가 많은데 우선 재채기가 나고 콧물이 흐르며 惡寒과 頭身痛 또는 四肢關節이 쭈시기도 하고 목이 붓거나 기침이 일어 난다. 또는 身熱이나고 몸이 勞困하며 飲食減退와 虛脫, 自汗, 氣力이 衰殘하는 수도 있다.

또한 모든 熱性病(傳染性疾患), 發炎性疾患이 그 始初에는 感冒症狀처럼 일어나기 때문에 診斷上鑑別을 要하며 經過를 銳意注視하여야 한다.

따라서 治療에 있어서도 患者의 體質, 環境, 原因, 症候, 輕重, 經過時日, 季節등에 따라 이에 相應하는 治療를 해야 할 것이다.

## 22. 漢方臨床學<sup>4)</sup>

外邪인 風寒, 風熱의 侵入으로 因하여 病이 發生한다.

則氣候의 變化和 日교차가 甚하여 寒涼의 급격한 변화는 人體의 氣溫적응에 이상이 생겨 발생하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급격한 기후변화에도 면역력이 강화되어 있으면 병이 생기지 경우도 있고 또한 冷熱의 큰 변화가 없어도 저항력이 약하여 平溫氣候에도 발병되는 경우가 있다. 또는 時感과 같이 流行하는 毒감이다.

## Ⅲ. 總括 및 考察

以上の 感冒에 關한 文獻을 調査定理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內經<sup>6)</sup>에서는 風邪는 百病之始이며 外感風邪가 外部로부터 人體內에 入하면 振寒汗出, 頭痛, 身重, 惡寒등의 症을 發하며 그 治法에 있어서는 陰陽을 調和시켜 補할 것이나 浮할 것인가를 결정하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風邪는 陽邪이어서 陽先受之한다고 하였다. 그래서 변화가 빠르며 風氣는 皮膚시간에 먼지 藏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요즘 일컫는 流行性感冒와 그 症이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和劑局方<sup>21)</sup>에는 感冒에 汗부로 發汗시켜서는 안된다고 하였다. 왜냐하면 자칫 眞氣를 損傷시키므로 하여 他證을 發하게 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傷寒六經證과는 달리 感冒는 風寒에 依한 輕證<sup>3)</sup>이라고 볼 수 있으며 그 治法 또한 傷寒疾과 유사하나 약간 相異한 點을 볼 수 있다. 그래서 感冒를 四時傷寒 혹은 傷風이라고도 한다.

醫學正傳<sup>3)</sup>에서는 感冒와 傷寒을 구별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丹溪<sup>20)</sup>는 傷風의 原因臟器를 肺라 하였고 辛溫, 辛涼之劑로 散시켜야 한다고 하였는데 이는 현대의학에서 말하는 上呼吸道 感染症과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sup>9)</sup>

入門<sup>16)</sup>에서는 感冒는 주로 苦寒에 依하여 發病이 높다고 하였는데 역시 氣候變化에 依하여 주로 冬春등에 流行하는 流行性感冒를 일컫는다고도 할 수 있다.

景岳<sup>18)</sup>은 傷風의 本來病因을 外感이라고 하였으며, 그래서 傷寒의 輕症이라고도 하여 最初 皮毛로부터 入하여 肺와 鼻口등으로 나아간다고 하였으며 원래 病因이 外感이나 寒熱의 경우 各各 勝한 때에는 나타나는 症이 다르며 氣血의 強弱에 依하여도 달라진다고 하였다. 醫宗金鑑<sup>13)</sup>에서는 傷風의 症狀를 聲重하며, 코가 막히고 재채기가 나며 맑은 콧물이 흐르는 경우와 재채기가 나오지 않으면서 노란콧물이 나오는 두가지 경우로 구별하고 있다. 이는 風寒이나 風熱感冒에 의한 구별이라고도 할 수 있다.

현대醫學에서의 感冒는 上呼吸道感染疾의 대표적인 것이다<sup>9)</sup>고 할 수 있으며 發熱骨節疼痛과 咳嗽, 咯疾등의 症狀을 나타낸다. 그러나 이와 유사한 症狀을 나타낸다고 하여 반드시 感冒라 할수는 없다. 왜냐하면 熱性疾患은 대부분은 초기에 이와 같은 症을 發하기 하기 때문이며, 반드시 鑑別진단을 하여야 할 것이다.<sup>4)</sup>

#### IV. 結 論

感冒에 關하여 考察한 結果 다음과 같은 結論을 얻었다.

1. 感冒의 原因臟器는 肺이며 그 原因은 주로 外感風邪에 依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2. 感冒의 症狀으로는 發熱, 頭痛, 惡寒, 骨節疼痛, 鼻流, 咽痛, 聲重 等이며 이러한 症狀은 다른 外感 혹은 內傷에 依한 熱性疾患에도 類似하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반드시 鑑別診斷을 行하여야 한다.

3. 治法에 있어서는 辛溫, 辛涼之劑를 由할수 있으나 病의 輕, 重과 氣血의 強弱에 따라 辨證施治하여야 한다.

4. 感冒는 傷風 或은 四時傷寒 등으로도 일컫어 지는 것으로 傷寒證과 구별되어 인식되어야 한다.

5. 感冒는 現代醫學에서 上呼吸道感染病中의 一種인 流行性感氣라고 할 수 있다.

#### 參 考 文 獻

1. 康命吉: 濟中新編, 杏林書院, 서울, 1982. p.24.
2. 金永勳: 晴崗醫鑑, 成補社, 서울, 1984. p.75.
3. 朴炳昆: 增補漢方臨床四十五, 大光文化社, 서울, 1984. p.59~60.
4. 蔡仁植: 漢方臨床學, 大星文化社, 서울, 1987. p.312.

5. 許 浚: 東醫寶鑑, 南山堂, 서울, 1981. p.405.
6. 洪元植: 精校黃帝內經, 新光文化社, 서울, 1981. p.113,62,55,84.
7. 龔廷賢: 壽世保元, 宏業書局有限公司, 臺北, p.105,108.
8. 傳青主: 傳青主男女科, 大星文化社, 서울, 1984. p.21.
9. 上海中醫學院編: 中醫內科學, 商務印書館, 香港, 1977. p.554~556.
10. 沈金熬: 沈氏尊生書, 自由出版社, 臺北, p.291~293.
11. 安徽中醫學院編: 中醫臨床手冊, 成補社, 서울, 1983. p.105,106.
12. 虞博: 醫學正傳, 成補社, 서울, 1986. p.37~45.
13. 吳謙外七十九名: 醫宗金鑑, 서울, 1983. 中 p.322,323.
14. 陸青節: 萬病醫藥顧問, 僑聯東方國書公社, 臺北, p.32,33.
15. 李中梓: 醫宗必讀, 文光圖書有限公司, 臺北, 民國 66. p.226~227.
16. 李 梴: 醫學入門, 南山堂, 서울, 1985. p.1376, 1377.
17. 林佩琴: 類證治裁, 施風出版社, 臺北 民國 59. p.14,15.
18. 張介賓: 景岳全書, 臺聯國風出版社, 臺北 民國 61. p.206.
19. 正文書局: 徐靈胎醫書全集, 臺北, 民國 61. 卷 1 p.103.
20. 朱震亨: 丹溪心法附餘, 大星文化社, 서울 1982. 上卷, p.104,105,106, 107,108,111,118.
21. 陳師文: 太平惠民和劑局方, 施風出版社, 民國 64. 卷二 p.7,8.
22. 平凡出版社: 皇漢醫學, 廣法社, 서울, 1975. p.57,58,60.